

“발심품계법회 반야용선 타는 것과 같아”

조계종 포교원, 호암사서 발심품계법회...351명 신도 등록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에 의지해야 하고, 밤에는 등불에 의지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단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신도등록 100만명을 위해 3월 22일 서울 호암사(주지 정묵)에서 첫 발심품계법회를 봉행했다. 포교원은 새 신도들을 위한 신도등록 체계화를 위해 올해 핵심 주요 사업으로 신도교육과 조직화 사업에 나섰다. 발심품계법회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신도교육 체계 정비와 함께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발심-행도-부동-선해 4단계 중 첫 발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교원은 초발심 신도들과 아직 신도등록을 하지 못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초발심의 중요성과 사찰·종단의 신도로서의 의미, 발심품계법의 의미와 가치 등에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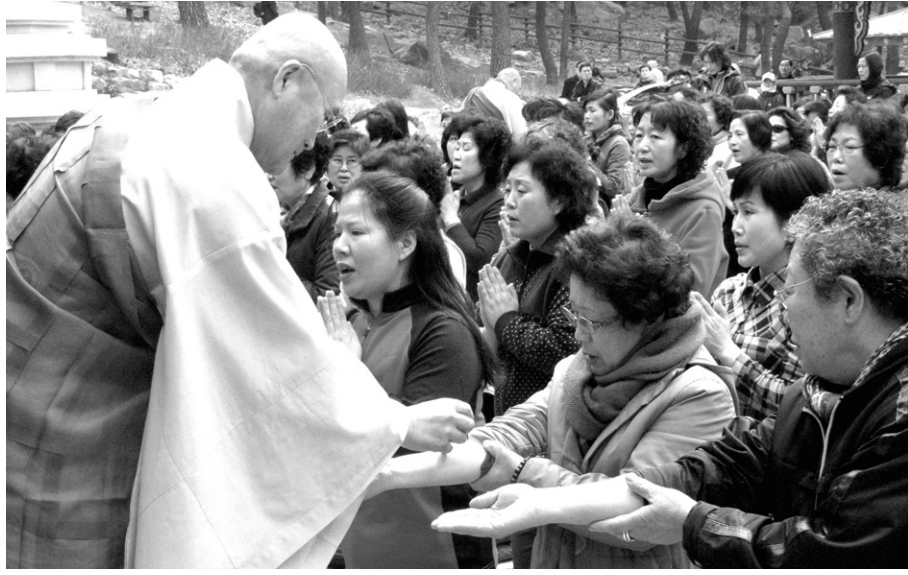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발심품계법회는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의식이다. 마치 반야용선을 타는 것과 같은 것”이라

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호암사 신도 351명에게는 신도등록 후 품계제도의 첫 번째 단계인 발심품계가 품서 됐다. 이들은 재가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오계를 수지한 후 수계의식과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지원 스님은 발심품계를 품서 받은 신도들에게 “뜨거운 신앙심으로 부처가 되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한다”며 “원력은 무엇하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원력은 발심 도전 열정 정열 행동이 있어야 한다. 원력이 곧 희망의 가장 큰 보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공덕화(법명) 보살은 “호암사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신도등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번 기회로 신도등록도 하고 발심품계법회에 참여하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의지가 다시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사에서는 신도등록을 하고 그동안 호암사에서 신도교육과 신행활동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호암사 신도들에게 발심 품계와 함께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나간 신도 184명에게 행도품계에 해당하는 품계 휘장이 수여됐다. 호암사 주지 종묵 스님은 “호암사는 이번 계기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심품계법회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첫 발심품계가 호암사에서 이뤄진 만큼 신도등록 100

만명을 위해 호암사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교원은 수도권 사찰을 중심으로 발심품계법회를 정례화 해, 지속적으로 발심품계법회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5년 내 사회적기업 100개 설립할 것”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2기 개설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 사회적기업전문지원사업단(단장 이찬영, 이하 사업단)이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불교계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2기’를 개설했다. 강연은 4월 13일-6월 15일 중앙신도회 선운당에서 매주 목요일 실시된다.

사업단은 지난 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1기를 개설한 바 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이론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정책자금·투자자금의 펀딩 및 운용 >모금 >관공 >영농 및 유통 >문화 >생태 및 환경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등 사회적기업 창업에 유용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 이진천 불내살림 대표, 김이선 우리기반드는미래 대표 등 현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최

고 CEO들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전문 강사진들이 나서 사회적기업 경영에 관한 그들의 노하우들을 전수한다.

이찬영 단장은 “한국사회에서 종교계의 비중은 큰 편이다. 이미 개신교에서는 ‘1교회 1사회적기업’ 운동에 나섰고, 가톨릭에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불교계 사회적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며 “사업단은 향후 5년 내 양질의 사회적기업 100개를 설립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인적자원을 양성시켜 사회전반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불교계 사회적기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02)732-7273

이은정 기자

“사찰음식은 한국의 진정한 음식같아요”

프랑스 최고 요리사 토마스 켈러 김천 청암사서 사찰음식 체험

“이번 한국방문에서 가장 기뻐던 것은 청암사에서 사찰음식문화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찰음식문화는 한국의 진정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권위있는 일간지인 르몽드(Le Monde)의 음식 평론가를 감탄시킨 프렌치 런드리(French Laundry)의 총주방장 토마스 켈러(Thomas Keller·사진)가 김천 청암사의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토마스 켈러는 삼성카드와 신라호텔의 초청으로 갈라디너 행사를 갖기 위해 3월 12일 내한해 10일간 한국에 머물렀다.

일정 중 19일 청암사를 방문한 토마스 켈러는 “한국의 정신문화와 사찰음식의 진수를 경험하기 위해 청암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토마스 켈러와 일행 20여 명은 스님의 발우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참관에 임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토마스 켈러는 사찰음식을 음미하는 동안 제철야채를 비롯해 김치, 동치미, 시래기와 같은 저장야채의 조리법에 관심을 보였다. 특히 된장, 고추장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재료준비에서 상차림에 이르는 정성스러움에 감탄을 표시했다.

토마스 켈러는 디덕·시금치 무침을 스님들에게 배우면서 “다시 청암사를 찾게 되면, 스님들과 함께 밭에서 채소를 재배



해 요리하고 싶다”며 “나의 요리 철학이 불교의 윤회사상과 닿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청암사의 체험이 나의 요리에 어떤 영감으로 작용할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암사 학인스님들은 평소 단련해 왔던 태극권을 대웅전 마당에서 시연하고 청암사 보리수 열매로 만든 108염주를 토마스 켈러에게 선물했다.

상덕 스님은 “토마스 켈러가 자신이 쓰던 칼을 청암사에 보내주겠다고 했다”며 “토마스 켈러의 방문은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문화도 알리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토마스 켈러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1983년 프랑스 최고급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의 기본을 다진 뒤 1994년 ‘프렌치 런드리’를 인수해 세계 최고 레스토랑으로 만들었다. 미술랭가이드는 “세심한 기술과 기법이 완전무결한 정밀함과 결합해 미각을 깨워 일으키는 음식을 만들어 낸다”고 극찬했다.

이아은 기자

홍보 강화...장기기증 확산 도모키로

생명나눔 임시이사회·정기총회 개최...새 이사 선임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3월 23일 본부 회의실에서 제32차 임시이사회 및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2011년도 회계감사 결과 보고, 2011년 사업 보고 및 회계 결산 보고, 2012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승인에 대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으며, 임원 선출 심의 승인을 진행했다.

문의)의 연임을 결의했다. 이 밖에 경남지역 본부에서 손도수 본부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본부장으로 장효익(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본부장을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봄을 맞이해 17일 BBS불교방송 법당에서 ‘생명나눔 작은 콘서트’를 개최했다. BBS불교방송 프로그램 고태우·세리의 ‘활력충전 2시 4시가 공동주최한 이 콘서트에는 생명나눔 장기 및 후원회원과 불교방송 청취자 등 400여 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가수 주병선, 박삼민 씨와 시원한 가창력과 깊은 울림을 전파하는 가수 유지나, 임지훈 씨가 참여했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은 나에게서 인연이 다해서 없어지고 말 것을 주는 일이지만,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에게는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선물”이라며 “하루하루 장기이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진 부처님 말씀 따라 기증문화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혜수 스님 등 신임이사 선출
환자 돕기 사업에 15억 예산 확정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홍보 캠페인 역량 강화 >효율적 회원 및 후원자 관리 >환자 돕기 사업 등 16개 사업에 예산 15억 6700만원으로 확정·결의했다.

이어 임기 만료된 정묵 스님(호암사 주지), 덕정 정사(진각종 문화사회부장) 연임을 결의했고, 이사 동광 스님(청담문화재단 이사장) 사의 표명에 따라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재무)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임기 만료된 감사로는 현암 스님(법륜사 주지), 이기화 감사(안진회계법인 고



승도를 공양하는 마음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 대웅전 앞마당에 커다란 발우 보시함이 등장했다. 조계사는 3월 22일 ‘노스님 병원비 마련’을 위한 생전예수제 입재식을 봉행했다. 발우 보시함은 종단이 진행 중인 승보공양 사업과 연계해 5월 12일 회향법회까지 모금이 계속된다. 모금액 전액은 승보 공양 사업에 기탁된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시민강원 19일 개강

효탄 스님 <금강경> 주제 강의

대안연구공동체(대표 김종락)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불교 시민강원’을 개강했다. ‘불교 시민강원’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서강빌딩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前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이 강사로 나서 <금강경>에 대해 10주 동안 강의 한다.

강사로 나선 효탄 스님은 “사찰이 아닌

이런 열린 공간에서 일반인들에게 <금강경>을 강의하니 색다른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 이런 취지의 강좌들이 더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종락 대표는 “<금강경>은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일반인들에게 유익한 수업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다음 학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등 불자들이 즐겨 보는 경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02)777-0616

이은정 기자

참된 불교의 근본교단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법인허가 취득에 따른 제증명 재등록 공고

한국근본불교 조계종이 태극 앞번저 왕립사원으로부터 남방불교의 교법을 전수하여 참된불교의 근본교단을 창종한 이래 18년 동안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며 진력한 결과 전국에 16교 구본사와 중도교육을 감내할 총본산 행정중심 총무원 청사 등을 완성하고 마침내 중도들의 숙원사업이던 법인 설립을 지난 2012년 3월 2일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증을 득하고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 모두는 종단의 큰 스님과 수많은 중도님의 성원과 원력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지난날 발급된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을 일괄 재발급하오니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아래의 내용으로 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준비서면 :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여권사진 3매, 개별승적부 1통 (인터넷, 우편, 팩스 사용가능)
- 대 상 : 본종 승려, 법사, 신도
- 접 수 처 : 서울 은평구 녹번동 89-13 송림사 1층 (총무원장 전화 011-352-7751) 전화 02)358-6641-2 / 팩스 02)358-6643 홈페이지 www.keunbon.org

입 증 안 내

본 종에 입증하고자 하는 승려, 법사를 환영합니다.
승려가 되고자 하는 행자를 모집합니다 - 속식제공)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이사장 겸 총무원장 의륜 합장